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1월 19일 (제92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조건부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다. 즉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기도를 해야 능력을 주고, 부르짖어야 크고 비밀한 길을 보이신다. 십일조를 드려야 인생에 황충이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반에서 1등하면 자전거 사줄게.’ 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조건을 두는 것은 부모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기에 축복에 조건을 두신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를 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셨다. 감사하면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병에서, 가난에서, 죄악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제사 드리는 것’은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곧 산 제사이므로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말씀으로 귀결된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질병으로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는 고통을 당했다. 이주 후에도 그들의 고통은 계속 되었지만, 추수한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즉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기초가 된 절기다. ‘~함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집 안에 펌프가 있었는데, 물은 그냥 펌프질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온다. 나는 감사가 이 마중물과 같다고 생각한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총,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물처럼 팔팔 쏟아진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 앞에 죽음과 고통이 놓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불구하고’ 감사할 때 나타난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목적이 분명한 자만 인내할 수 있다

가을, 추수(秋收), 감사(感謝), 농부의 인내(忍耐)...

깊어가는 가을은 곧 겨울의 옷깃을 여미게 하겠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언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다.

“열매를 따는 자는 씨를 뿌린 자가 아니라 열매를 딸 때까지 기다리는 자다.”

아무리 수고로 농사를 지으며 피땀을 쏟았다 하여도,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 곧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누가 포기

도 이기는 게임이요, 그냥 걸어가도, 아니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달라질 수 없는 결과였다. 거북이랑 경주라니...기가 차고 코가 찢 노릇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거북이가 경주에 승리한 것이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실컷 자고 일어난 토끼가 승부의 결과를 알게 된 순간, 바로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

“나는 더디 갈지언정 뒤로 물러가진 않는다.”

목사님의 이 선언은 바로 목표를 향해 직진만 계속한 거북이의 철학 아닐까.

성도의 인내는 바로 이것이라 믿는다. “성

길을 계속해서 가시려는 것이다. 비록 느리고 더뎌보여도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통해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끌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날에 주와 한상에서 떡을 떼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천국왕권의 꿈이 목사님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내는 주의 길을 계속 가리라!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바로 확고부동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힘을 얻는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의 너무나도 뻥한 승부가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은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거북이는 목표지점까지 그냥 전진해가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에 승부는 고사하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일에만 집중했다. 승부 따윈 거북이의 머릿속에 없었을 것이다. 목표를 향한 직진(直進), 경주에 임한 거북이에게는 오직 이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토끼는 경주의 결과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 거꾸로 가

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핍박과 순교가 와도, 죽음과 환란이 기다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한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칭찬 받는 자, 진정 인내의 단 열매를 수확하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다.

목사님은 이제 일본 지바 집회를 시작으로 호주 시드니(Sydney) 집회, 기도원 산상집회 등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다시 계속하신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잠시 속도를 늦췄던 것일 뿐, 본래 가던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있는 바에야 어찌 이 땅의 인내가 끝날 수 있을까.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가겠다’는 목사님의 찬송시, ‘나는 가리라’는 천성의 목표를 향한 직진 의지(意志)의 절절한 고백이다.

마지막까지 이겨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길을 나선 이유 아닌가.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일본 지바집회

11월 20(월) ~ 23(목)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2:1~21)

일꾼은 결과로 말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눅 10:2).

33년 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를 도와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한대로 일 잘하는 일꾼들이 대거 우리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중심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든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동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도하신 후에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바로 12제자입니다(막3:16~19).

여러분, 사람은 길러 쓰는 게 아닙니다. 골라 쓰는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마13:47~48)는 말씀을 삶 속에 응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릇에 담을 만한 자, 즉 쓸 만한 일꾼은 어떤 자일까요? 첫째는 일머리를 아는 자입니다. ‘일머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일의 내용, 방법, 절차 따위의 중요한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짚 껴뚫어본다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의지가 없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막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아직은 옛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총명하여 일머리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처음 들어온 아이라 잔심부름이나 하는 처지였는데, 그 녀석은 뒷사람이 ‘못!’ 하면 못 뿐만 아니라 망치까지 대령했습니다. 심지어 ‘담배’ 하면 담배와 성냥까지 가져갔고, 식당에서는 유리창을 조금 열어 환기까지 시켰습니다. 그런 그를 상사가 눈여겨봤을 터, 곧 정식 직원으로 발령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시켜보면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꼭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를 시키면 관련된 일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사라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감투만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머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풍요로운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일머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출애굽하여 대소사의 일들을 다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 때 일머리를 아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해줍니다. 그 후로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

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출18). 일머리를 아는 자를 ‘그 분야의 전문가’라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전문가를 쓰면 일류가 될 수 있고,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전혀 문외한을 기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지나가는 사람을 쓰는 것과 같은 것 이라고 성경은 지적해줍니다(잠26:10). 또한 일꾼은 연장을 쓸 줄 아는 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소가 논밭을 갈았습니다. 그 때 보면 일을 잘 하는 농부는 절대 소를 때리지 않고 ‘이라 이라~’ 하면서 물 흐르듯 소를 부리는 반면, 소를 못 다루는 농부는 애꿎게 소만 때리고, ‘이 놈의 소’ 하며 욕을 내뿜습니다. 기도원 에 서 도

일을 할 때 보니까 연장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확실히 일을 잘 합니다. 지게차나 트랙터를 몰고 일을 척척 해냅니다. 그래서 일 잘 하는 사람이 연장 탓을 하나봅니다. 교회 안에서 연장은 ‘은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행1:8). 그런데 이 막중한 임무를 연장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팬핑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연장 없이 나가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고전12:8~10).

제가 오늘날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연장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병 고치는 은사로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 먼 자를 보게 하며, 병 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꼬부라진 것을 펴게 하며, ‘예수이름’으로 바람을 잡

잡게 하고 비를 멈추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



총회장 이초석 목사

들을 제한해서 안 됩니다. 그들이 진

정한 일꾼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일꾼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정치를 하든 거기는 다 전쟁터입니다. 승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가정에 얽매었다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경이 온통 가정에 가있으면 일에 몰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버스회사의 사장은 가정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속을 썩인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심지어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자동차 키를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갈리어 사고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사고율이 낮다고 합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생활에 얽매인 자라면 성도를 살리기는커녕 성도에게 짐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냉철하게 이 부분에 선을 긋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14:26).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2:3~4).

당신은 교회의 디딤돌인가 아니면 교회의 걸림돌인가

그리고 일꾼은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가운데 중(中)에 마음 심(心)이 합해진 것이 충(忠)이니 곧 진심과 정성이요, 말씀 언(言)에 이를 성(成)이 만나 성(誠)이니 역시 곧 진심과 정성을 뜻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맡기십니다. 충성된 자는 절대 불만불평하지 않습니다. 물이 그릇을 탕하지 않듯 충성된 일꾼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고 일을 하는 자는 충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보고 뛰는 자는 열과 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두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이런 마인드를 국민에게 심어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교회는 특성상 직분을 주는 것은 쉽지만 빼앗기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나 권사, 집사, 조장이나 구역장을 세울 때는 사람을 오래 관찰하여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대로 시험이 들고, 교회에 누가 되고, 목사의 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로임직을 늦추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결과로 말합니다. 선한 목자와 삿꾼 목자의 결과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참된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참된 일꾼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며,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세상과 구분된 삶

나는 소심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지침서입니다. 고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분의 노출을 꺼려하는 특성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2~3%, 또는 최대 3~8%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74억 명의 인구 중에 약 2억 2천만 명이 동성애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124만 명 정도의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하니 인구 40명 중 1명 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커밍아웃(Coming out)’으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성경에도 곳곳에 나타나 있으며 역사적 기록을 보더라도 고대로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점은 ‘성소수자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마치 고상한 지식인양 생각하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백주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해피망 축한 변태적인 복장을 하고서 ‘퀴어 축제’를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부터 시작하여 서울, 제주, 울산,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춘천 등지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으며,

그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조항’ 폐지를 입법하여 국회에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도덕적 문란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무너져 나날 것이고, 에이즈의 창궐과 자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일시적인 쾌감 때문에 동성애에 빠지게 된다면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파멸해져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인권’은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끝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꺼지지 않는 영벌의 지옥에 보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정치적 성향이나 인정과 동정 때문에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위배하고 명령을 거역한 동성애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18:22).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치유의 첫째 관건은 고백(직면)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중독자임을 인정해야 치유가 시작된다.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다. 자기에게 아픈 기억과 기억하기 싫은 모습은 덮어두고, 보지 않으려 하고, 결국은 본인도 그 사실을 잊고 산다. 그러나 직면해야 치유된다. 고백과 인정은 용기이다. 나는 남자답게 살았다고 자부했다. 결혼하는 직원에게 보너스 1억도 통 크게 주고,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직원에게 천만 원 씩 주기도 하고, 못살 때도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다. 교만했다. 그러나 모든 걸 잃고 고통의 세월을 겪은 오십 후반에 고백하게 되었다.

‘나는 소심합니다. 나는 너그럽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명예와 자존심을 존중하여 이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나는 겁이 많습니다. 두려워서

앞으로 닥칠 작은 일에도 미리 힘들어합니다. 나는 항상 비교하며 삽니다. 나는 나를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나를 놓고자 하나 나를 더욱 잡는 무엇이 있어 나를 이깁니다. 이제 놓게 하소서. 겸손과 온유와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루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자유케 하소서. 내 영이 주인 되게 하소서. 내 걸사님이 정녕 주의 지체가 되게 하소서’

약할 때는 의지하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할 수 없다. 인내하며 살게 된다. 남을 침노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과 합한 자이겠는가. 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11:30).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 세상을 보는 창 ::

:: 귀를 기울이세요 ::

일상에서 찾는 감사

인내로 이룬 추수감사

46세에 옥에 수감되어 27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70세가 넘어서 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있었다. 27년을 옥살이한 사람치고 너무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에 기자들이 질문했다.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감사’라고 말했다. 그는 옥에서 고된 노동을 나갈 때도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에 감사했고, 남들은 좌절과 분노로 분을 삭일 때 그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했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벨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은 긍정적이고 칭찬이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감사라고 한다. 아마도 감사는 행복한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게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에 대해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뭔가 대박이 터졌을 때다. 하지만

대박이 났을 때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얻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 느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다. 만나의 시작은 기적이 었다. 만나의 모양은 쫄쫄 같고도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출16:31).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곧 만나의 이름이 되었다(출16:14~15). 그러나 만나가 매일 반복되다보니 백성들은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만나처럼 매일 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다.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어도 기적이듯이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따라온 교인들은 습관적으로 나가는 첫 말들이 있다. 감사하네, 진짜 감사하네. 완전 감사하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서도 참 감사한 교회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춰진 기적을 찾아 베푸신 분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본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지난 토요일, 청년부 기도모임을 마치고 성탄절 성극연습을 하러 가던 길. “리더님, 어떻게 하면 전도한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청년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형제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했더니, 그 청년은 “전도를 여러 번 했는데 영혼의 정착이 잘 되지 않고, 그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했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당장 영혼의 열매를 빨리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영혼의 열매를 위해 전도의 씨를 뿌려서 교회에 오게 하고, 누군가는 교회에서 그 영혼을 성장하고 자라게 시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하고 또 전하세요.”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이 주일을 맞이하여 충만한 예수중심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영혼의 열매를 거두었는가’라고 한번 씩 올해를 뒤돌아보았을 것이다. 새신자도 많이 오고, 부흥이 많이 되어 감사기도를 드린 이들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해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영혼의 추수를 못 맺었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꼭 거두게 되어 있다. 전도를 다녀보니 빠르면 몇 개월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전도의 씨도 있고, 3년 정도 느긋하게 있다가 맺어지는 전도의 씨도 있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맺어지기를 기다리는 전도의 씨도 있더라.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상고하고 열매 맺기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이 되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다시 우는 장닭

제가 대학시절 전도로 유명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가지는 아내의 말에 “예수가 밥 먹여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라고 호기를 부리며 그냥 여행을 떠났다가 몇 시간 후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일가족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일하게 의식이 있었던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족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기적처럼 가족 모두를 살려주셨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1년에 300회 이상 전도법을 강의하며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그분의 책과 집회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비디오 노방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같은 과 친구들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요. 당시에 마음이 딱딱해서 예수 믿지 않겠다며 싫다고 거부하던 친구들도 많았는데, 10년쯤 지나 연락이 닿고 보니 하나같이 다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친구들이 또 하나같이 “그때 네가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귓등에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고백하니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그때 들었던 집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박찬 감정과 감사가 느껴졌는데 오히려 한 가지 실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와 다른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시큰둥한 친구들을 부여잡고 열변을 토하던 모습,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무작정 한복을 빌려 입고 전도지를 만들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달려들었던 호기(豪氣)는 다 어디 가고 그저 나만 좋은 말씀 듣고, 나만 평안한 생활에 감사하는 노제(老鷄)가 된듯해 서글프고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이제는 장성한 조카가 SNS에 간증을 올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소

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심령이 고맙고, 그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기대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심령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지요.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 이르렀을 때 길을 지나던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답답해하던 그에게 예수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주변에 있던 물로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성경에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티오피아에 예수를 전파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renming@daum.net**

행복

약초를 캐러 산에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가파른 곳에 있는 약초를 캐다 미끄러져서 넝쿨 속에서 고이 잠을 자고 있던 호랑이 꼬리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놀란 이 사람은 옆에 있는 나무로 정신없이 올라갔습니다. 맛있게 잠을 자던 호랑이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간 나무를 발로 찼습니다. 나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렇잖아도 온 몸에 땀이 난 사람은 나무를 잡고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그는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호랑이의 등이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호랑이의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멀리서 이것을 본 농부가 한 마디 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야 먹고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네 그려.” 우리 목사님이 이 말 자주 하셨는데 생각나시나요? 호랑이 등 위에 있는 사람 부러워 말라고. 그 사람 거기서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돈 많아 좋은 것 같지만 재벌들 힘듭니다. 화려한 연예인들도 힘듭니다. 남들 보기에 예쁘게 꾸미고 신날 것 같지만 인기는 순간 혹은 가는 거라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나의 생활 이대로’에서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명예, 부귀 다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내게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네잎클로버가 행복이 아니라 네잎클로버를 찾는다고 슬하에 밝히고 있는 세잎 클로버가 행복입니다. 호랑이 등에 타려고 노력하지 말고, 호랑이 등에 탄 사람 부러워말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을 누리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대저 여호와께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지리다
(시편 100편 4~5절)

☘ 성공하려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Be faithful in principles the more difficulty you face,
if you want to succeed.
若想成功,就越困难越要忠于基本。

☘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강한 태풍에도 이긴다

Even a tree can stand firmly facing strong storms
if its roots are strong.
树根结实,才能在强大的台风中稳如泰山。

☘ 기초 체력 보강하라

기초과학 기초공사 보강하라
성장 발전의 열쇠다

Strengthen your health.
Reinforce the basic science and basic construction.
This is the way to success.
要加强基础体力,
也要加强基础科学和基础工程。
它们是成长发展的钥匙。

약식동원 과일편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요즘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과일들에 는 사과나 배, 감, 귤 등이 있다. 오늘은 이 익숙한 네 가지 과일의 효능을 알아 보고 몸에 좋은 과일을 건강에 알맞게 먹는 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사과는 달고 서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비위와 심장의 경락으로 영양이 간다고 한다. 마음을 든든히 해 주고 기운을 나게 하며 술독을 풀어주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갈증을 줄여준다. 사과는 칼륨함량이 높아서 육류 섭취가 많거나, 짜게 먹는 음식습관이 있는 경우 체내의 과도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며,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갖게 해주어 배고픔을 견딜 수 있게 하니,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 허약체질이나 가벼운 복통 설사에 사과를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되며, 소화기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과량복용 시 배가 더부룩해져서 소화가 안 되기도 한다. ‘옥용단’이라고 사과즙을 약한 불로 끓여 액이 엷과 같이 걸쭉하게 되면 약간의 꿀을 넣고 잘 섞어서 냉장 보관하여 필요시마다 먹으면, 기운을 회복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다.

두 번째, 배는 달고 서늘하여 폐와 위의 경락으로 간다. 열을 낮추고 가래를 삭혀주며, 몸의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해준다. 열병이 있고 난 후나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나 눈이 벌겍거나 변비, 기침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많이 먹으면 비위를 상하게 하므로 배가 차고 아픈 경우나 임신부는 많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염이 있는 환자분에게는 간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우며, 혈압도 내리고 폐결핵, 인후염증 환자가 평소 복용하면 좋다. 세 번째, 감은 달고 서늘하며 건조한 성향이 있으며, 심장, 폐, 대장의 경락으로 간다. 열을 식혀주고 몸에 진액을 공급해주며, 기침을 멈추고 변이 묽을 때 도움이 된다. 홍시는 달고 평이한 성질이어서 비위를 튼튼히 하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며, 설사를 멈추는 효능이 있어서 변비가 있을 시는 피하는 게 좋다. 꽃감은 성질이 차고 설사를 멈추고 지혈작용이 있어서 코피가 나거나, 설사, 이질에 활용이 된다. 감꼭지(시체)는 딸꾹질의 묘약이므로, 딸꾹질이 잘 안 그칠 때는 감꼭지를 끓여서 차로 마신다. 비타민C를 보충해주는 감 잎사귀가 건강차

로 잘 알려져 있다. 네 번째로 귤은 달고 시큼하며, 폐와 위의 경락으로 간다. 구역질, 딸꾹질,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래 기침 시에 도움이 되며, 코피가 있거나 마른기침이 있는 경우는 복용을 줄인다. 말려서 차로 자주 마시는, 귤껍질로 알려진 진피는 성질이 따뜻하고 기 순환을 원활히 해주며,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가래를 삭혀주며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어, 약방의 감초 못지않게 치료한약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약재이다. 진피를 대추와 함께 식전에 마시면 소화를 촉진시키어 주고, 소화기를 튼튼히 해주게 된다. 귤즙으로 얼굴 마사지나 팩을 해도 도움이 되며, 말린 귤정과도 소화기를 편안히 해주며, 가래와 기침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강에 좋으려니 먹고 있는 과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유의 효능이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골고루 다양한 과일을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나, 때론 내 몸에 좀 더 적합한 과일을 복용하여 건강을 잘 지키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